

강행원 作, 선운사, 가공캔버스 수묵혼합채색 60.6X50.0



강행원 作, 산명곡응(전서 45X35) 화선지 먹 1993.

“번뇌 사라질 때 ‘그림’ 나와”

1977년 ‘강행원 한국화사생전’
끊어진 사생 전통 다시 이어
새로운 소재 한국문인화 선보여
‘동양화’ 명칭 버리고 ‘한국화’

1988년 전시 민중미술운동 시작
‘관세음보살의 민중불교 역할도’

문인화, 서예 등 작품 1200여 점
〈금까마귀~〉 등 시집 5권 출간

‘강행원 작가’ B1면에서 계속

조용한 가운데 정진이 아니라 도전이요 대전이요 응전이다. 5년 전부터 시작한 현장사경(現場寫景)의 작업은 굶주림과 질시 속의 강행군이었다. 스승도 없고 화우(畵友)도 없고 고달픔을 어루만져주는 가족도 없었다. 그 속에서 뙤약볕과 설한풍(雪寒風)의 아픔을 견디며 한 점 한 점의 현장사경을 끝마쳐야 했다. 〈후략〉”

강 작가의 첫 개인전이 주목을 받은 대목은 ‘사생전’과 ‘한국화’였다. 그때까지 우리의 그림(한국문인화)은 동양화라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이름 속에 있었고, 일제는 ‘조선화’라는 이름을 낳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그림은 정체 없는 이름과 사라진 시대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리고 한동안 ‘사생화’를 볼 수 없었다. 강 작가는 끊어졌던 사생의 전통을 다시 불러온 것이다.

강 작가는 자신의 글씨가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자 그 붓끝을 그림으로 돌렸다. 3년여 동안 운영했던 서예학원을 접고 그림을 시작한다. 강 작가는 조선대부고 시절 김용구 화백으로부터 서화(書畫)를 시작했었다. 글씨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다. 글씨를 놓고 그림을 시작한 강 작가는 우선 스승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스승들을 찾아내긴 했으나 그 스승들을 모두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었다. 산문에서의 공부와 사바에서의 공부는 그렇게 달랐다. 산문에서의 공부는 마음만 정하면 되는 일이었으나 사바에서의 공부는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강 작가는 시련을 기회로 삼았다. 스승으로 삼고 싶었던 이들의 그림은 모두 관념속의 산수였다는 것을 알았다. 강 작가는 그들과 다른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관념이 만들어낸 자연이 아닌 생생한 눈앞의 자연을 그리기 위해 전국을 돌기 시작했다. 그는 3년여 동안 전국의 자연을 화가의 눈으로 밟았다. 날이 저물면 절에서 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일어나 걸었다. 그야말로 운수납자였다. 강 작가는 산문의 안과 밖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일까. 그는 전시회 인터뷰에서 “나의 스승은 자연”이라고 했다.

그의 전시와 그림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역사였다. 그의 전시와 그림이 역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문에 밝았던 그는 중국문인화에 대한 서적을 섭렵했고, 한국화와 닿아있는 모든 그림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그림을 찾아낸 것이다. 그의 그림은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문인화였다. 그의 그림은 시대의 흐름이 됐다. 많은 주요 매체들이 강 작가의 그림을 찾았다. 삽화가 필요한 곳엔 그의 그림이 있었다. 강 작가의 작품은 산수, 인물, 문인화, 서예, 전각, 석고문인 비석글씨까지 1200여 점에 이른다.

강행원이 그리는 정토

1980년 10월 한국화를 전공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 일간지 회의실에 모여 ‘전통과 형상’ 그룹을 결성하고 매달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당시 강 작가는 간사였다. 모임은 제도미술의 허위의식과 시대정신의 부재를 일깨우고 일제잔재의 틀에 갇힌 미술을 해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중미술운동의 시발이었다. 하지만 전통과 형상 그룹에서 민중미술운동에 뛰어든 작가는 강 작가가 유일했다. 그가 민중그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1987년 신세계 화랑에서 개최한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개인전에서 선보인 ‘관세음보살의 민중불교 역할도’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구열 평론가는 “불교와 민중의 관계사회의 시각 관세음보살과 난지도 서민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시각의 변환, ‘역원근법 시각의 묘사’ 등을 통해 잠재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림은 당시 불교종단이 하화중생의 보리심을 갖지 못한 세태를 풍자하고 힐난하고 있다. 당시까지 한국화뿐만 아니라 어떤 공모전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강 작가의 그림은 의미가 컸다.



청화 스님(왼쪽)과 강행원.

그렇게 강 작가 그림의 중심엔 ‘민중’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불교가 그 내용의 한 축을 이루었다. 새로운 한국화였고, 새로운 한국문인화였다.

그의 그림의 소재는 폭넓고 다양했다. 그의 만리행이 보여주듯이 국내 산천은 돌아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고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의 풍경도 그의 그림 속에 있었다. 무안 갯벌을 여행하면서 갯벌에서 일하는 여인상을 그리고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한 만경강을 탐사하면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든 전봉준 화상그림’을 남긴다. 묘길상과 삼선암이 등장하기도 하고 선화 ‘차 한 잔 하고 가시게’에서는 차 한 잔으로 품을 수 있는 삼라만상의 묘법을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그가 그려낸 그림들은 강행원이 그리는 정토였다. 그리고 그 정토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세계 서방정토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청화 스님의 그늘은 그의 말대로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자양분이었던 것이다.

“그림에 몰두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번뇌 사라질 때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강 작가는 1977년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개인전과 국내외 그룹 및 초대전을 가졌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삼절을 이루다

2019년 10월, 강 작가의 시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이 출간됐다. 그의 다섯 번째 시집이다. 그의 첫 시집은 1989년에 나왔다. 그는 고등학교 때 어느 문학의 밤에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려온 그림들과 함께 선적인 시어로 그려낸 시화집 〈금까마귀 들락날락〉에서는 출가를 경험하고 민중미술을 이끌며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자신의 삶을 진하게 드러냈다. 존재의 이치에 다가간 불교적 메시지를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냈으며, 폭넓고 깊은 불교사상과 사유에 바탕을 둔 그림도 눈길을 끈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왜 종교를 찾고 시를 읽는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무위한 자연으로부터 오는 감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음수행을 강조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한다.

강 작가는 인터뷰 내내,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이름을 ‘삼절’ 앞에 놓지 않았다. “태어나보니 붓과 글이 가까이 있었고, 붓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좋아 평생 붓과 함께 살다보니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고, 또 글씨와 그림을 그리다보니 시를 쓰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그늘을 지나온 덕분”이라고 했다.

강 작가는 인터뷰가 끝나자 기자에게 자신의 시집을 전하기 위해 펜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책 표지를 넘겨 자신의 이름과 기자의 이름을 적었다. 그에게 모든 글씨는 서예였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짧은 글에서도 그는 분명 서예가였다. 강 작가는 한 자 한 자 온 마음을 다해 글씨를 썼다. ‘삼절’이란 그림이나 글씨의 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는 마음의 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그림과 글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삼절의 기준이 아닐까.

